

전설의 비극성과 상상력

—아기장수 전설을 중심으로—

장 장 식*

1. 머리말

[1-1] 전설을 포함한 모든 이야기는 누군가에 의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다. 이때, 이야기의 성립요건을 누군가라는 전승집단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라는 이야기의 주제, 곧 이야기함으로써 의도하고자 하는 기능적 의미의 측면, 그리고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의 서사 구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세 요소가 이야기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틀이 되며, 이것으로써 그 이야기의 진술행위가 가진 보편적 진실을 확보하는 것이다.

[1-2] 전설의 인물은 흔히 예기치 않았던 사태에 직면하여 당황하거나 왜소해짐으로써 자연과 세계 질서에 대한 좌절과 패배, 나아가 죽음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맞게되는 바, 이러한 전설의 인물[아기장수]이 갖는 불행과 비장이라는 특수성을 전설의 비극성이라 칭하고자 한다.

이야기를 진술하는 전승집단의 의도와 그에 따른 작품 구조 속에 드러나는 비극성은 세계와 역사인식에 대한 가치판단으로 표출된 것이

* 경희대 민속학 연구소

라 하겠다.

[1-3] 따라서 아기장수 전설의 비극성과 그에 관련된 몇가지 문제를 규명하는 작업은 역사적 실체가 전승집단에게 어떻게 투영되었는가 하는 역사 문제와 관련된다고 하겠다.

2. 아기 장수의 비극성의 요인

[2-1] 비극적 정황으로 귀결되는 대표적인 설화유형이 금기 설화이다. 금기설화의 주인공들은 행복한 삶이나 생명구원이라는 중차대한 행위 목표 아래서 주인공 자신의 사소한 실수에 의해서 좌절하고 있다. 이러한 사소한 실수가 내포한 비극적 결함[tragic flaw, hamartia]이 주인공을 가공할 정도의 고통과 파멸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본 전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아기장수와 용마의 죽음은 극단적 상황으로 일반적인 영웅설화[소설]와는 다른 양상이다.

선택되지 못한 다수의 공동체 의식을 추구하고 있는 이 전설은 단순히 부모가 고귀한 신분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이 야기 자체가 함축하고 있는 좌절의 비극적 구조를 지배하는 ‘시대 상황’에 관심을 집중한다.

[2-2] 아기장수의 죽음과 용마의 죽음에서 발생하는 비극성의 일차적 요인은 아기장수를 둘러싼 어머니[부모]와 관군이라는 가해자의 개입이다. “날개가 돋혔다” “천하장사라는 것이 서울에 알려진 소문”때문에, “선반에 올라가서 노는” 아이의 겨드랑이에서 발견된 날개와 “부모의 심부름에 발휘한” 초능력때문에 어머니와 관군이 아기장수를 죽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비한 힘, 날개에 대한 소문이나 ‘남의 앓’의 진원지가 주인공 자신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초능력을 감추지 못하고 남에게 노출시킨다는 것이다. 주인공이 지닌 날개와 초능력은 남에게 보이지 말아야 할 신성징표인 동시에 잠재금지로

표상된 미래왕, 영웅의 상징을 뜻한다.

결국, 아기장수의 비극성은 주인공 자신의 부주의와 실수로 발생된 전형적인 비극적 양식에 나타나는 pharmakos의 그것과 동일하다 하겠다.

3. 전승집단의 역사인식

[3-1] 전설의 가치체계는 사실성에 있다. 사실성에 바탕을 둔 이야기는 증거물이라는 개재물로 인해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전설의 주인공이 실제적 인물이거나 실제적 인물로 간주되어 전승집단의 일면으로 수용되었을 때, 그 이야기는 역사적 상관물로 자리잡으면서 전승집단의 선별적 가치와 의도에 따라 전승행위가 가능해진다.

어떤 선형적 사건의 많은 역사적 인물 중에서 전승집단과 연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인물과는 다른 선별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승집단은 어떤 사실을 어떻게, 어떤 인물관계로 등장시키느냐는 것을 결정한다. 따라서, 전승집단의 이야기 구성과 진술행위는 선택적일 수밖에 없다. 선택적 행위에 의해 어떤 인물에 대한 일련의 사건들이 있음직한 사건들로 자리잡는 전설적 전환이 이루어질 때, 그 이야기는 그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3-2] 아기장수 전설에서, 부모나 관군에 의해 자식을 스스로 죽이는 잔인한 행위가 아무런 선악개념 없이 담담하게 진술되는 것은 역사적 reality의 문제와 관련된다. 아기장수는 미래왕의 구원자적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돌·벧돌·벧섬으로, 인두 지짐으로 아주 무기력하게 죽는다. 여기서 어머니와 관군이라는 개입자는 전승집단의 중개자적 인물인 까닭에 이야기와 역사의와 파행성을 막기 위해, 아기장수를 죽일 수 밖에 없다.

[3-3] 그러면, 이러한 아기장수의 비극성을 통해서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기장수 전설에 제시되는 주인공의 출생시기는 막연한 시기로, 내적, 외적 갈등이 상승되는 불특정 시대와 관련된다. 즉, 시간적 배경은 어느 특정 시대가 아닌 사회적 anomie 현상이 발생하는 모든 때를 포괄하는 것이다. anomie 현상이 상승하는 시대 상황에서 느끼는 상대적 실조감은 전승집단의 의식 변화를 요구하는 동적인 원인이 된다.

여기서 말한 의식의 변화란 세계와 역사와 횡포에 대한 자기 방어적 해석과 그에 따른 삶을 대처하는 행위의 능동성을 말한다.

세계를 바라보는 전승집단의 의식은 인간심성의 한계와 역사를 감내하려는 부정적, 긍정적 운명론과 그것을 소거하려는 반운명론적 입장으로 대별된다. 이것을 역사라는 실체에 비추어 볼 때, 역사적 실체를 운명적으로 수용하고 감내하려는 태도와 역사 실체를 거부하고 새로운 역사를 피하고자 하는 태도로 인식될 수 있다. 새로운 역사 실체를 갈망하는 사고는 역사를 이원적으로 파악하는 인식에서 가능하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사회 전반적인 anomie 현상과 불만족스러운 시대 상황 및 불안이 야기되는 '현재'에서, 그 모든 실존감이 해소된 상황이 전개될 '미래'에 대한 인식이다.

불안한 현재와 안정될 미래의 이분적 사고가 아기장수 전설에서 파악되는 두 개의 역사 개념이다. 초월적 권능에 의해 구제되기를 회구하는, 열린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기대치의 역사—열림의 역사가 닫힘의 역사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아기장수의 투쟁과 좌절이 자기의 위치를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일지라도 미천하고 연약한 민중이 염원하는 열린 세계를 실현하고자 하는 점에서 그 의의가 인정되는 것이다. 분명, 아기장수는 출현할 때마다, 출현하는 곳마다 제거되는 비극을 감수하고 있지만 또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이다. 이점이 곧 패배를 겪고도 엄청난 승리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전승집단이 공유한 열림의 역사 전개에 대한 인식인 것이다. 따라서, 아기장수의 비극성은 비극적 인물을 통해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는

의식의 소산이며 민중의 절대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기 확인인 것이다. 그것은 곧 좌절하는 영웅에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구원자적 인물의 출현과 그 출현에 의해 닫힘의 역사를 파괴하고 열림의 역사전개를 상징한, 변증법적인 인식의 결과라 하겠다.

4. 상상력의 위축과 전설의 전개양상

전설은 증거물이 존재함으로써 완결된다.

어떤 사실에 출발하여 있음직한 사실로 형상화되는 전설적 전환과 객관적 인식체인 증거물과의 결합도 ‘어떤 사실’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와 또 다른 역사의식을 고양시킨다. 아기장수 전설의 서두에 제시되는 비특정적 사건도 ‘어떤 사실’에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비특정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아기장수는 어느 인물로서도 대체될 수 있는 성격의 인물이기도 하다. 이같은 어떤 사실에서의 전설적 전환은 상상력이라는 전환자에 의해 가능해진다. 그러나, 전설은 역사와 현실이라는 개입에 의해 상상력의 제약을 받는다.

즉, 어떤 사실에서 출발하게 한 현실세계와 어떤 사실에서의 전설적 전환이 결합되는 증거물에 구속되는 까닭에 상상력이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상력에 제약으로 주인공의 비극성이 야기되며, 이 비극을 통해 반역사를 지향하는 동시에 현실에 대한 구원의식을 각성하는 것이다. 상상력의 제약도 서사구조를 제약한다.

만약, 상상력의 제약이 없었다면, 비극성은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고, 좌절이 아닌 무한한 영웅적 투쟁과 승리라는 서사구조로 바뀌었을 것이다.

5. 맺음말

아기장수 전설에 나타난 비극성의 요인은 주인공을 둘러싼 가해자의 개입에 있지만, 주인공 자신의 부주의와 실수로 발생되어 전형적인 비극성 양식에의 *pharmakos*의 양상을 띤다. 그러므로, 주인공의 비극은 주인공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하겠다. 주인공의 비극성을 주인공 자신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전승집단의 역사인식과 관련을 맺는다. 전설은 어떤 사실의 선택적 사건에서 출발하여 있음직한 사건으로 자리잡는 전설적 전환으로 형성된다.

선택적 사건의 이야기 전환이 역사와 현실의 기반에서 출발하므로 전설의 내용이 역사와의 파행성을 야기하지 않고 역사적 사실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증거물과 결합되며, 따라서 아기장수의 비극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아기장수 전설은 사회적 *anomie* 현상이 상승하는 시대 상황과 그 문제에 대하여 수용·거부를 통해 새로운 역사실체를 갈망하는 사고를 제공한다. 이는 불안한 현재와 실조감이 해소될 미래에 대한 인식으로 초월적 권능에 의해 구제되기를 갈망하는, 열림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기대치의 역사 전개를 의미한다. 그러나, 아기장수 전설과 같은 영웅이야기가 역사와 증거물 내에서 이야기를 형상화시키는 스스로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신화와는 달리 상상력의 제약을 받으며, 이러한 위축된 상상력은 독특한 집단인식을 가능하게 하고 서사구조를 제약하는 주인공의 비극성을 강조하는 동인이 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전개될 영웅이야기는 그것이 역사적 기반에서 출발하는 한 스스로의 한계점에 도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